

분류	주일예배 설교- 주일2부
제목	두가지 법
성경	로마서 7:19-25
일시	2009년 6월 28일
장소	임마누엘 서울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 (로마서 7:19-25)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요약 자료 ♣

☞ 서론

▶오늘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정말 받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을 했다.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내 속에 두가지 법이 있다. 왜 선을 행하고 싶는데 선보다 악을 더 행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답이 안오면 기도응답 못받는다.
거의 우리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될 때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붓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늘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되는 그 시간이 응답 일어나는 시간표이다.
▶오늘 기도응답받는 한가지 길을 꼭 깨달아야 한다.

1.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 (1)아브라함(창13:18, 창14:14-20)
▶아브라함이 계속 이중 생활하다가 어느날 결단을 내렸다. 모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때부터 얼마나 역사 일어났는가?
- (2)세청년(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한번만 절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단3:8-24절에 보면 그것을 거부하고 전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 (3)다니엘(단6:10-22)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사형받게 되었다. 단6:10절에 보면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 (4)고넬료
▶마가다락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 특수부대 백부장이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

2.성경에 일어난 치유를 보라.

- (1)바디매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
- (2)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자폐아들도 많다.
▶이 사람들이 낫고 안났고는 그 다음이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복음 듣는 시간이다.
- (3)마12:45-47, 인간의 인격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다. 이것을 막는 길이 복음 밖에 없고, 말씀 전하는 길밖에 없다.

3.사역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기도가 나온다. 나는 왜 이럴까?
(1)인간- 인간은 두가지 성품, 두가지 의지를 가지고 늘 싸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2)솔직한 고백- 고치려면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24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때 솔직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 기도시간이다.

(3)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없이 살수가 없다.

▶이러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린다.
왜냐? 구원받은 자니까...

4.결론- 구원받은 자는 네가지 눈이 열린다.

- (1)소망- 세상은 해결책이 없다. 소망이 없다. 좋은 것 너무 많은데 나를 진정으로 살릴 방법은 없다.
- (2)은혜- 30년 동안 잘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 (3)감사-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군선교해야 한다.
- (4)영광-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 살리는 가운데 램네프, 대학, 군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눈치 채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복음만 전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이 연속이라...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축복이 모든 군,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end)

♣ **독취 자료** ♣

☞ **서론**

▶우리 전교과 세계 사명자들이 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가능한 다음에는 하사관과 모든 장교, 장군들, 예비역들도 군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군대가 멋있게 보여야 우리 후대들이 훈련을 받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 자체, 군 선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군대 훈련 가운데 제가 느끼기로는 해병대가 제일 훈련 잘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있다. 가보면 해병대 출신들은 해병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해병대 출신들은 보면 해병대 제대했던 웃도 집에 걸어 놔다. 나는 방위병들이 옷걸어놓은 것은 못 봤다. 그건 부끄러운 줄 알고 안 걸어놓은 것일 것이다. 차에도 보면 해병대들은 뭔가 표시가 있다. 제 마음 속으로 교육을 잘 하는가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야 된다.

▶군 선교하고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관계가 있다. 군에서 꼭 해야 될 것은 나중에 마치고 특강할 때 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방법이 뭐까?

그걸 오늘 바울이 고백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는가?

나는 왜 이럴까? 그랬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 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소리를 안 그런다. 또 여러분이 포럼 하는 시간에 불신앙 포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 진짜 내가 왜 이럴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왜 이럴까?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보다 악을 더 행할까? 여러분은 어떤가? 이 바울의 고백이 거짓말 같은가 진실 같은가? 우리하고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답이 안 나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응답되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거의 우리는 두 마음, 두 생각,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붓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늘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응답 일어나는 시간표이다. 알아들었는가? 이게 군대하고만 관계있는가? 아니다. 장교들 말고 졸병들에게 물어봐라. 절대 복음 안 들어간다. 이유가 있다. 졸병들은 전부 이중인격이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싶을 것이다. 확인해봐라. 지금 할 수 없는 군대 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장 대위나 이 대장님이나 이런 장교하고는 다르다. 졸병들은 할 수 없이 간 것이다. 그래서 2년 3년 매우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군대생활, 개인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굉장히 손해 보는 시간이다. 좌우지간 적당하게 매우자는 것이다. 그게 군대 가는 것이다. 군대를 가면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옛날에 우리 집 옆에 한명 있었다. 그런 사람은 내 생애 딱 한명 봤는데 이 친구는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한다. 휴가를 한 달인가 와서 15일 하고 갔다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왜냐? 군대가 좋다니까. 그 외에는 거의 가기 싫어한다. 거의 이중인격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중인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딱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한 시간표요 기술이다.

아니 우리 아들이 군대 가더니만 달라지더라. 진짜 내가 놀란 게 내가 부대를 찾아갔었다. 그냥 물렸는데 네! 대답하더라. 완전 사람이 달라졌다. 내가 다른 놈인가 싶어서 얼굴을 자세히 봤다. 높은 사람이 너 고생하는구나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기도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도 왔다. 그때 느끼길 군대 갈만하구나. 군대는 이렇지 말고 한 10년 해야 되는데 싶더라. 그때 내가 또 뭘 느꼈느냐. 이렇 게 아니고 여자들도 가야 된다. 여자들도 군대를 갔다 봐야 철이 들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제대함과 동시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그게 이중인격이다. 이게 거의 그렇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니까 계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표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하는 데 숨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가 된 군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었다. 많이 있다. 그러나 대표적 인물이 나왔었다. 다윗은 군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갔다. 다윗은 사울과 싸울 때도 비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양보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군인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른다. 한 가지 길을 꼭 깨달아야 된다.

▶서론- 이중생활

여러분 이중인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인간이 이렇게 이중생활을 계속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신앙생활과 연결되면 큰일난다. 이래서 이게 심해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한다. 이게 이중생활이 계속 되다가 그렇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계속 되다가 마약에도 빠진다. 그게 전부 이중생활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범죄에 살인도 한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길로 간다. 그래서 완전 마음속의 두 사람이 영육 간에 다 분리된 것을 보고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1.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1)아브라함(창13:18, 창14:14-20)

▶여러분 제일 응답을 이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창 13:18, 창14:14-20에 보면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중생활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다.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 얼마 안가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다르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100% 살 수 없다.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2)세 청년(단3:8-24)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성경에 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거의 군과 같은 사람들이다. 얼마든지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때 군 계통에 있는 도지사들이다. 우상 앞에 절 한번만 하면 성공시켜주겠다 그랬다. 그때 단3:8-24에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뒷말이 더 무섭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우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시간되길 바라고 군 살리는 시간되길 바란다. 제자훈련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군 선교 작전을 많이 바꿔야 된다. 놀랍게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군만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군속에서 너무 중요한 사명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큰 축복의 비밀을 지금 군이 안고 있다. 저는 사실 군을 놓고 많은 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중요한 시간표는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3)다니엘(단6:10-22)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은 총리다. 단6:10-22에 보면 나오는 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자 굴의 사형을 받게 되었다. 단6:10에 보면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4)고넬료(이탈리아대)

▶초대교회의 백부장 고넬료를 보라. 마가 다락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대 백부장이다. 군인들은 다 아실 것이다. 군대는 계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위치이다. 이 고넬료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탈리아대 특수부대의 백부장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버린 것이다. 저는 한번 고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주석이나 줄 유명한 주석들을 뒤져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다. 우리는 군대가 제일 심하고 어디든지 우리는 두 가지 생활을 늘 해야 된다. 이게 하나로 묶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이다.

2. 성경에 일어난 치유를 보라.

▶성경에 일어난 치유를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치유되었는가? 우리가 믿을까 말까 이렇까 저렇까 할 때는 치유 안 된다.

(1)바디메오(소경)

▶성경에 치유된 사람 가운데 한명만 예를 들겠다. 바디메오. 아무 생각 없다. 오직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고향을 지른 것이다. 이 사람은 소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를 모른다. 지나가는 것은 대충 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귀가 아파 조용히 하라고 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조용히 하라고 했다.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조용히 하라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 데 소리를 더 크게 지른 것이다. 왜 그런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리는 사람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셨다. 천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이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산업과 군대를 위하여 눈을 돌리신다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직 복음 말고는 사람을 잘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복음 아니고는 군대를 살릴 수가 없다. 복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직 복음 말고는 북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왜?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도하셔야 된다. 복음 말고는 안 된다. 시간 많이 걸린다. 여러분 그 생각이 없는 이상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군 복음화를 왜 하는가? 만약 군에 왔을 때가 가장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2)정신, 자폐아(뿌리)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 무료로 진료하는 큰 병원만 70개인데 다 자리가 없다고 한다. 또 돈을 내는 정신병원은 가득 찼다. 지금 보혈 못 받고 길에 돌아다니는 정신질환자도 많다. 병원까지 안 가도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환자가 많다. 사회생활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우울증에 시달려서 혼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자폐아들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낮고 안 낮고는 그 다음 얘기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복음이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은 복음을 듣는 시간이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 뿌리내릴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다. 그런데 거의 복음뿌리 못 내리도록 자꾸 자신과 옆에서 만들고 있다. 이것만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

(3)마12:45-47

▶더 중요한 것은 마12:45-47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 마귀가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것 막는 길이 복음밖에 없고 말씀 전하는 길밖에 없고 여러분 사역밖에 없다.

3.사역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많은 사역하시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1)인간(의지)

▶오늘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기도가 나온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지금 그냥 얘기가 아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고백이다. 나는 간섭하지 말아요 알아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간혹 유학생들이 망하는 이유가,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알아서 혼자 못 하게 되어있다. 군대에 군인들을 그냥 혼자 놔두면 되는가? 안 되게 되어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품이 늘 싸운다. 인간은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늘 싸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천지차이다.

(2)솔직한 고백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겠느냐? 이게 뭐가? 여러분 이걸 솔직한 고백이다. 이럴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솔직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것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있다. 자신에게 해라. 사람 앞에, 사람 앞애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자신 앞에서...

▶한번은 길을 가다보니까 마피아 경영론이라는 책이 있었다. 마피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싶어서 내가 책을 샀다. 1장을 넘겼다. 1장에 뭐라고 써놨냐? 나는 1장부터 충격 받았다. 마피아 책에 은혜 받았다면 이상하겠지만 1장부터 충격되는 말이 있었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마피아 경영론 제 1장이 다른 사람은 속여도 네 자신은 속이지 마라. 이게 마피아 경영 1장이야. 다른 사람은 속여도... 이 말이 이제 문제지만.

(3)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솔직한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 드린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다. 여러분 군에서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제자 한 명 만들면 군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군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언약 붙잡으면 무조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문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응답문이 열린다. 왜 그런가? 구원받은 자니까.

4.결론- 구원받은 자는 내가지 눈이 열린다.

▶구원받은 자는 내 가지 눈이 열린다. 또 내 가지 눈이 열려야 한다.

(1)소망

▶첫째이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세상이 틀린 것도 아니다. 세상은 구원 대상이지 멸망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다. 저는 이걸 발견했다. 좋은 것은 너무 많은데 나를 진정으로 살릴 방법은 없다. 저는 이걸 발견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저는 완전히 절망 상태까지 가봤었다. 절망상태에 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절망 상태였느냐? 진짜로 죽음도 생각해봤다. 그래서 한번은 내가 태종대에 가면 자살 바위라고 있는데 거길 내려다봤다. 일단 자살하려면 돌아야 된다. 내려다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 정도로 내가 절망상태까지 갔다. 스님들께 미안합니다만 불경을 제가 연구해봤다. 천리교 가서 3일을 공부해봤다. 제가 사주팔자도 조금 공부해봤다. 다 반대다. 거짓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다. 내가 스스로 하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소리다. 그건 육신적인 얘기이다. 그건 정신적인 얘기이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약속하셨다. 저는 그 성경말씀이 부딪쳐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모르겠는가? 왜 마귀의 일을 멸하는가? 모르겠는가? 세상을 한번 들여다봐라 모르겠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못 알아봤는가? 저는 성경의 그것이 불경이라고 했더라도 그걸 믿었을 것이다. 불경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말씀이 답이었다.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

(2)은혜

▶그러면서 30년 동안 잘 했느냐? 잘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멸망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감사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왜 군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맞는가?

(4)영광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내 가지가 제 신앙고백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

작년 램넛트 집회 때 램넛트에게 고백한 내용이다. 저는 이것 가지고 램넛트를 위해서 노래 세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특히 램넛트, 대학, 군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눈치 채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만 더 말하겠다. 저는 옛날에 전도 운동할 때 부흥이 절대 안 됐다. 이유가 있다. 이 중생화를 했었다. 혹시 교회 부흥될까 싶은 마음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했다. 부흥될까 싶어서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라. 이 두 개가 늘 헛갈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복음보다 부흥운동에 더 마음이 있었다. 부흥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리할 것 같다. 전도사가 부흥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평신도가 모르는 비밀이다. 평신도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이 비밀을 몰라서 안 한다. 목사님들이 왜 설치느냐? 부흥 때문에 설친다. 그런데 왜 일이 안 되느냐? 부흥의 동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천하의 사기꾼이다. 나는 부흥 동기를 없앴다. 내가 부흥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면 되겠는가?

나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 나는 복음을 하기로 했다.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나는 깨달았는데 한 가지 길을 가지기로 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이 연속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장로님들의 산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 모든 군과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사명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국 세계교회가 군을 향하여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darak.net ② http://data.darak.net	
총국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